

왜 기본소득인가?

이원재
LAB2050

wonjae.lee@lab2050.org

용어정리: 소득의 종류

- 전통적 분류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기본소득 관련 분류
 - 기본소득/참여소득/기여소득/사회수당
- 지급수단에 따른 분류
 - 타임뱅크/지역화폐/블록체인
- 생산체제 변화에 따른 소득 원천 변화
 - 공유부/로봇화/r>g

기본소득

1. 보편적 보장소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
2. 무조건적 보장소득: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
3. 개별적 보장소득: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

- 사회수당(아동수당): 1번을 완화한 소득
- 참여소득, 기여소득, 근로소득: 2번을 완화한 소득
- 생계급여: 2, 3번을 완화한 소득

기본소득의 개념과 유형

(무조건적)기본소득

무조건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알래스카주
유전채굴권 수익 25%를
영구기금으로 적립하여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매
년 약 \$2,000 지급



스위스 국민투표안
모든 스위스 국민에게
월 약 282만원 지급

수정기본소득

차액소득보장 일정소득수준에 대한 차액만을 보장

부의소득세(NIT) 고소득자의 양의 소득세를 재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와 노동소득 간의 간극을 보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월 소득 1,320달러 미만에게 부족분에 상응하는 보조금 지급

참여소득 노동의무를 부여하나 노동의 의미를 임금노동만이
아닌 자원봉사, 양육, 돌봄 등으로 확대하여 해석

사회수당 특정 연령대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급여

부분기본소득 기본적 필요충족선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 제공



핀란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25~58
세 2천명을 무작위 선발하여
2년간 월 72만원 지급



네덜란드

실험 참여자를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다양한 조건으로 매월
약 120만원 지급

'정책실험'의 시대

<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하는 국가들 >



기본소득 정책 실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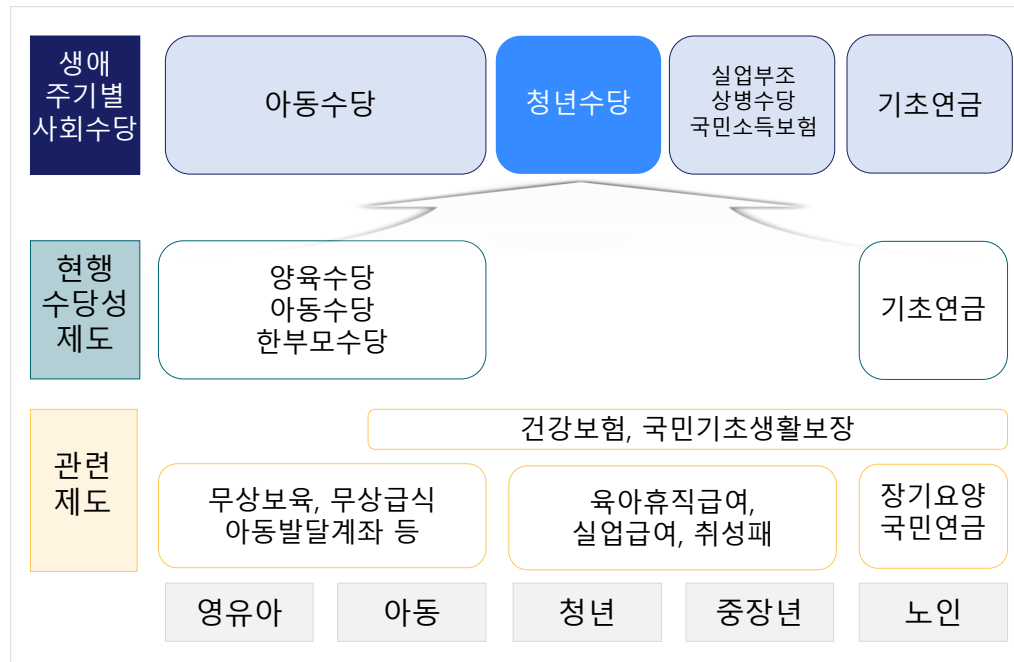
명칭	바르셀로나 (스페인)	스톡턴 (미국)	시카고 (미국)
시장	아다 콜라우 (Ada Colau)	마이클 텡스 (Michael Tubbs)	람 이매뉴얼 (Rahm Israel Emanuel)
실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2018년부터 실험 착수 ■ 대상 : 저소득 1,000가구 ■ 지급수준 : 기본 매월 900유로 및 가구 유형별 최소생활비 추가 ■ 실험목적 : 빈곤 개선 및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효과 측정 ■ 특이점 : 참여소득 결합형 설계 /지급액의 25% 지역화폐 R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실험 결정 후, 사전준비. 2019년부터 지급 실시 ■ 대상 : 연소득 26,000 달러 이하인 시민 100명 무작위 선정 ■ 지급수준: 월500달러 / 18개월 ■ 실험목적 : 기본소득 지급으로 도시와 시민의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효과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시의회 결의안 통과, 정책실험 설계 단계 ■ 대상 : 1,000 가구 ■ 지급수준 : 월1000달러 /1.5년 ■ 실험목적 : 조건 없는 소득 분배의 효과 검증 ■ 특이점 : EITC 결합형 설계

* 미국 대선주자 Andrew Yang – 모든 가구에 월 1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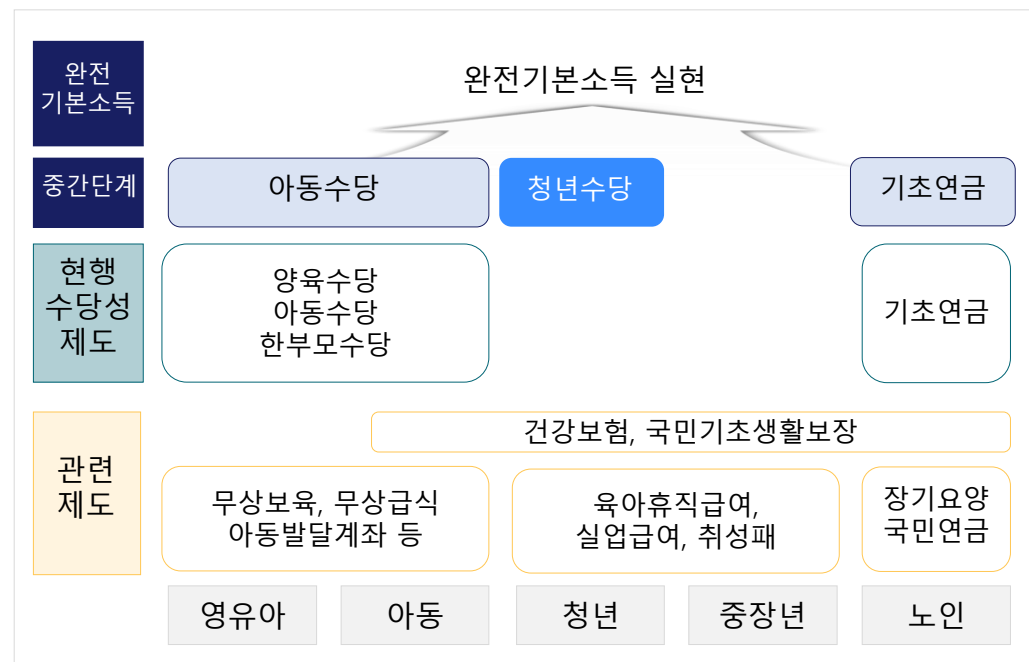
* 미국 하원의원 Alexandria Ocasio-Cortez – 그린뉴딜과 기본소득 결의안 제출

기본소득과 사회수당

보편수당 확대 주장



기본소득 확대 주장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출처: 김교성 외(2018), 『 기본소득이 온다 』

월급은
진리인가?

어차피 스쳐지나가는 월급,
냄새나 한번 맡아보자꾸나...



<자기만의 방> 중...



고정된 수입이 사람의 기질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무렵도 나에게서 500파운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음식과 집의 복은 이제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아름답고 보색과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과 쓰라림도 뿜어내며 제다.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세계문학전집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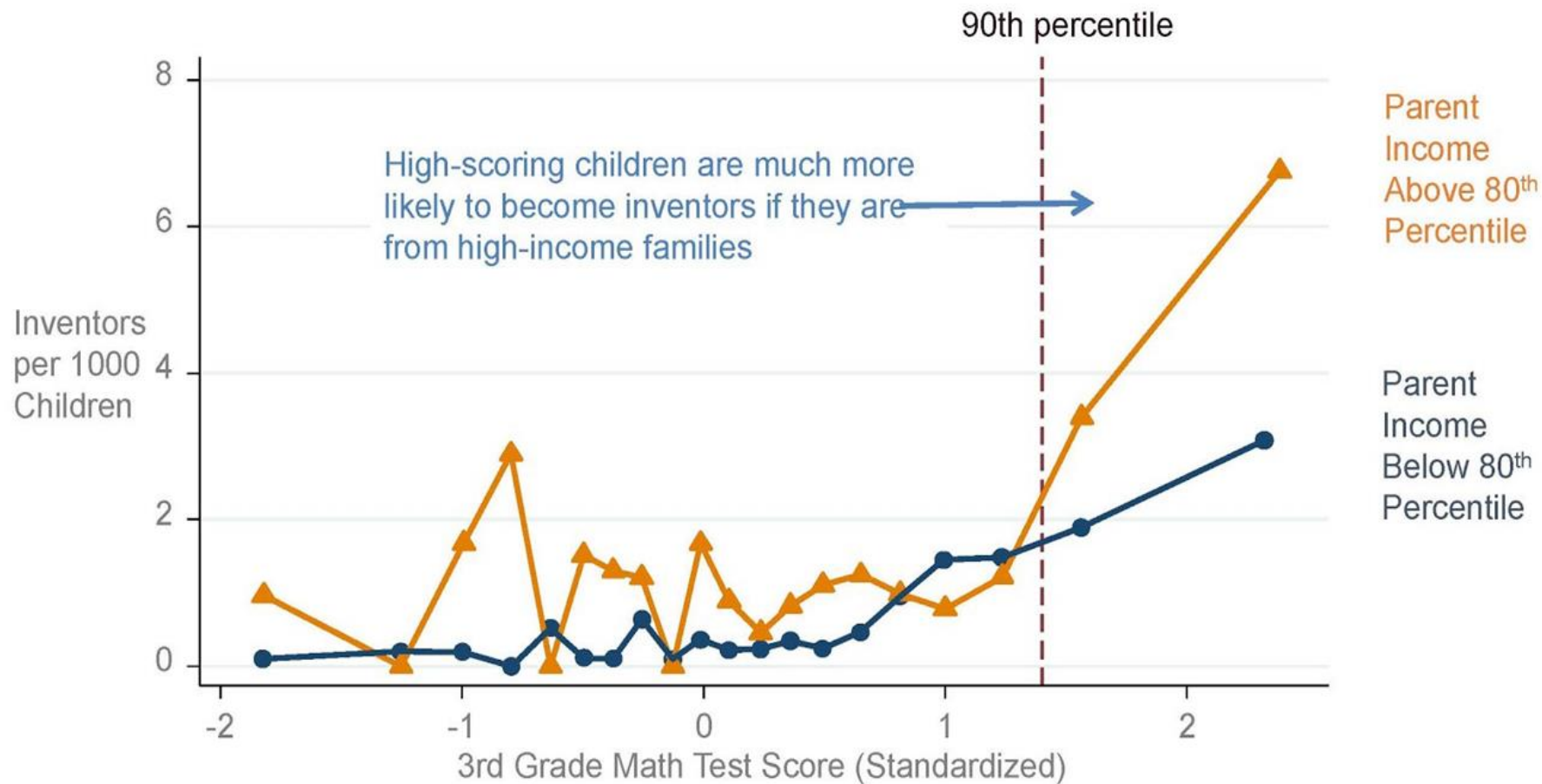
자기만의 방

A Room of One's Own • Three Guineas

버지니아 울프 • 이미애 옮김

잃어버린 아인슈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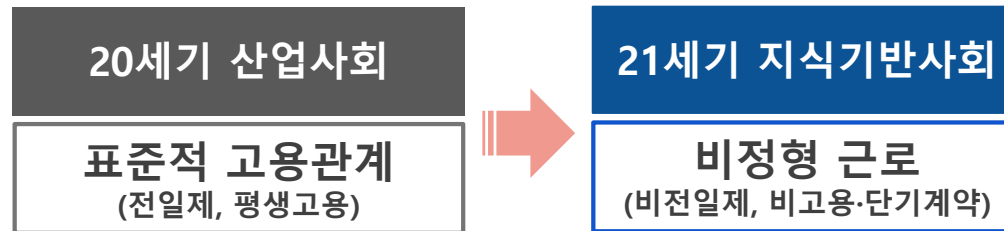
Patent Rates vs. 3rd Grade Math Test Scores



고용의 현재

□ 4차 산업혁명 및 지식기반사회 부상과 함께 ‘표준적 고용관계’ 해체

- 자동화로 전통적 노동의 빠른 대체가 진행중
- ‘플랫폼 경제’의 부상으로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가 고도로 유연해지는 경향 진행
- ‘전일제 일자리’가 희소한 자원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격차가 등장



□ 소득분배체계 위기로 계층간 격차 및 사회역동성 저하 현상 심화

- 자산소유자 및 숙련기술자와 미숙련 대중의 격차는 더욱 심화
- 미래세대의 위험 회피로 사회 역동성 저하

□ 기존 복지국가 대안들도 한계를 시험받고 있음

-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반해 짜여진 사회보장제도 → 사회적 위험 대응 제한적
- 경기 침체로 일자리 창출 둔화, 근로연계복지의 한계
- 이를 극복하려 북유럽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등장했으나, 여전히 한계 노출

산업별 취업자 증감 3.4만명 (전년동월비)

[주요지표](#)[지표설명](#)[메뉴화면](#)

2018년 12월기준(단위 만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4

농림어업

9.4

정보통신업

9.4

건설업

3.5

운수및 창고업

1.4

금융 및 보험업

1.4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1.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6

부동산업

-0.2

국제 및 외국기관

-0.3

증가

감소

-0.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7

광업

-0.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0

교육 서비스업

-3.9

숙박 및 음식점업

-6.3

도매 및 소매업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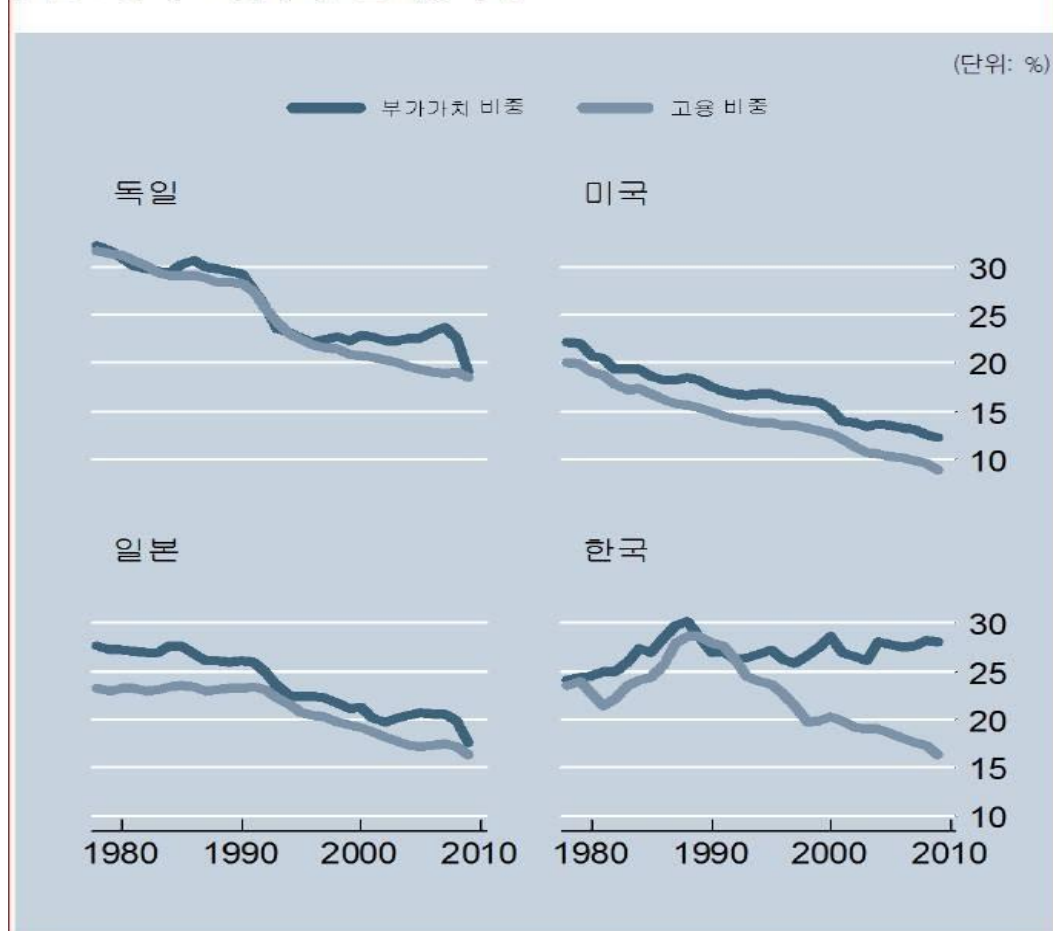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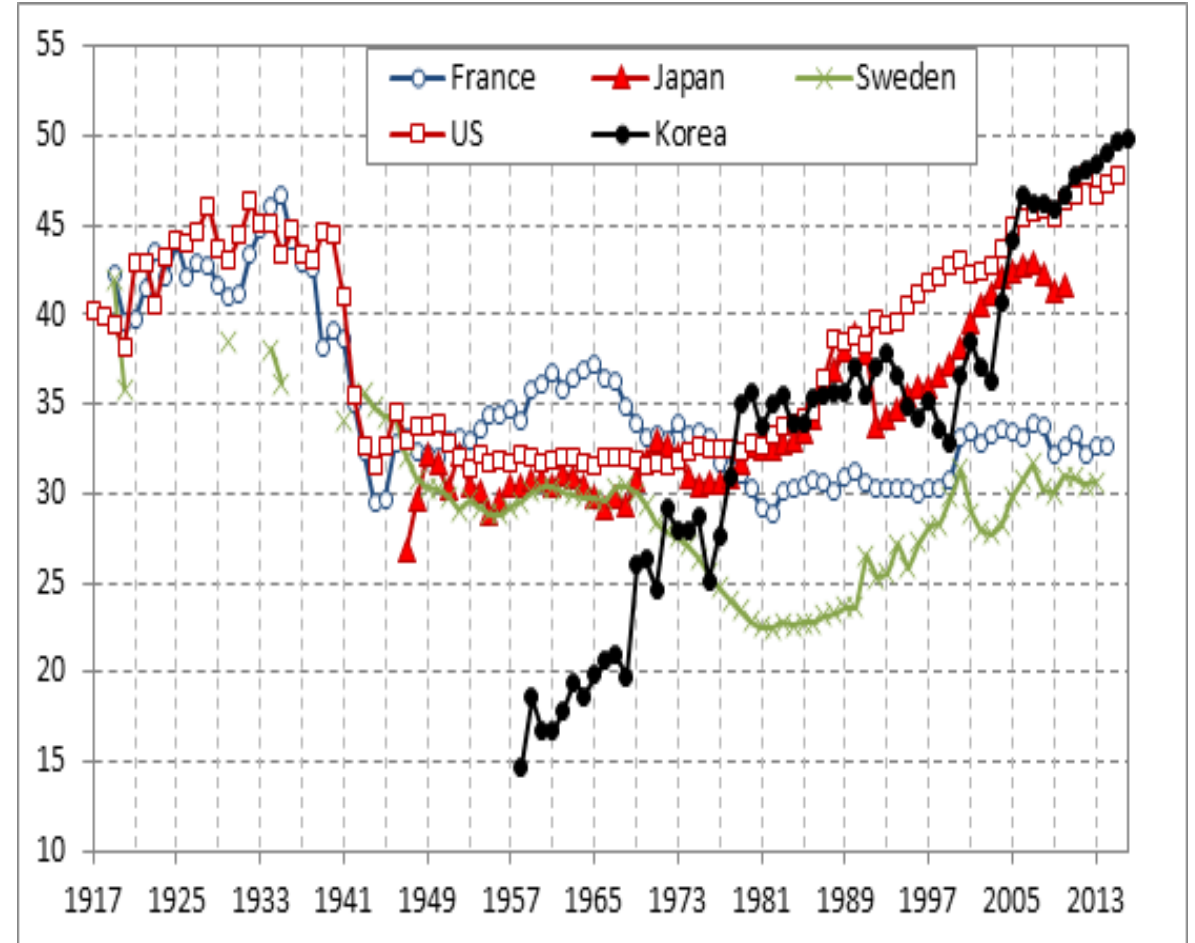
제조업

탈산업화 또는 탈고용화

[그림 1-8] 주요국들의 제조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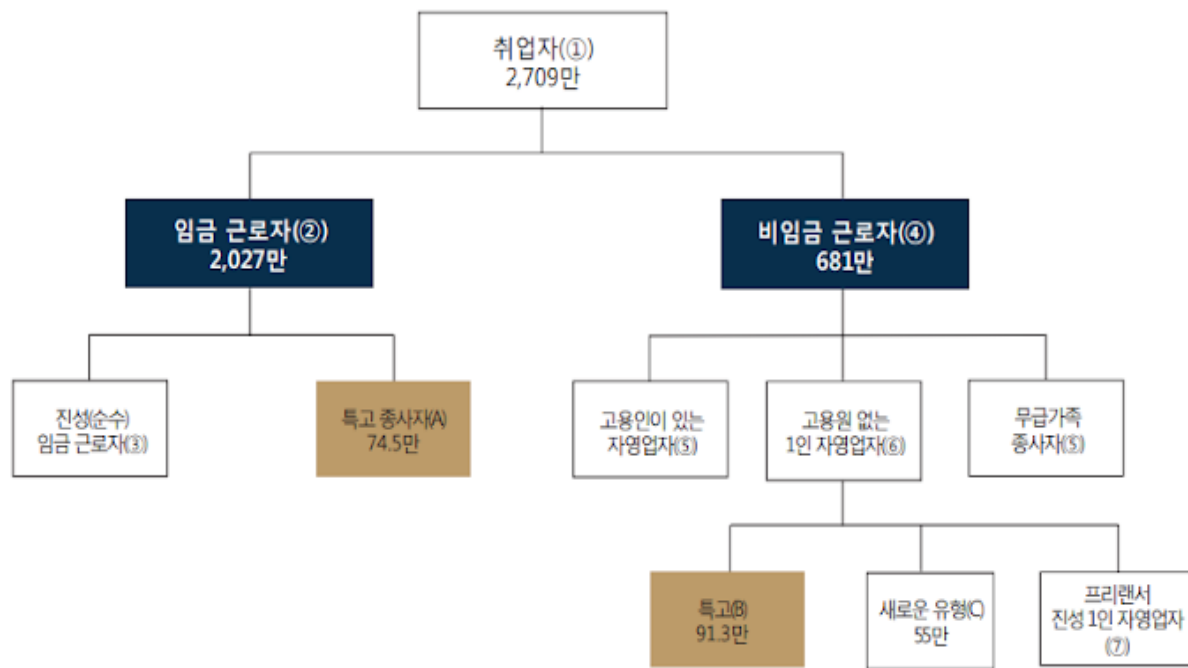


자료: OECD STAN Database.



500만명: 고용없는 노동자 또는 새로운 기업가

[그림 6] 특고 종사자의 규모 결과



특고(A+B) - 건설노동자, 강사, 돌봄노동자, 보험설계사 등 노동자이면서 고용주를 찾기 어려운 계층

새로운 유형(C) - 번역가, 강사, 디자이너 등 플랫폼 이용자

프리랜서/진성 1인 자영업자(7, 240만) - 전통적 자영업자(음식/숙박/유통) + 프리랜서
=>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2019년 집계 결과 2011년 고용노동부 집계보다 90만명 정도 증가. '새로운 유형'에 주목할 필요 있음.

비판과 대답

- 어려운 사람 먼저 줘야지... (보편복지 비판)
 - 월급은 왜 어려운 사람 먼저 주지 않나요...?
- 의식주나 교육 같은 복지서비스로 주는 게 효과적이죠! (현금복지 비판)
 - 월급은 왜 쌀이나 주거바우처로 주지 않나요...?
- 소는 누가 키우냐...? (복지 일반/비고용 급여 일반 비판)
 - 소 키우고 싶은 사람 소 키우고, 코딩하고 싶은 사람 코딩하고, 소설 쓰고 싶은 사람 소설 쓰고... 사람 없으면 월급 더 주고, 그래도 없으면 자동화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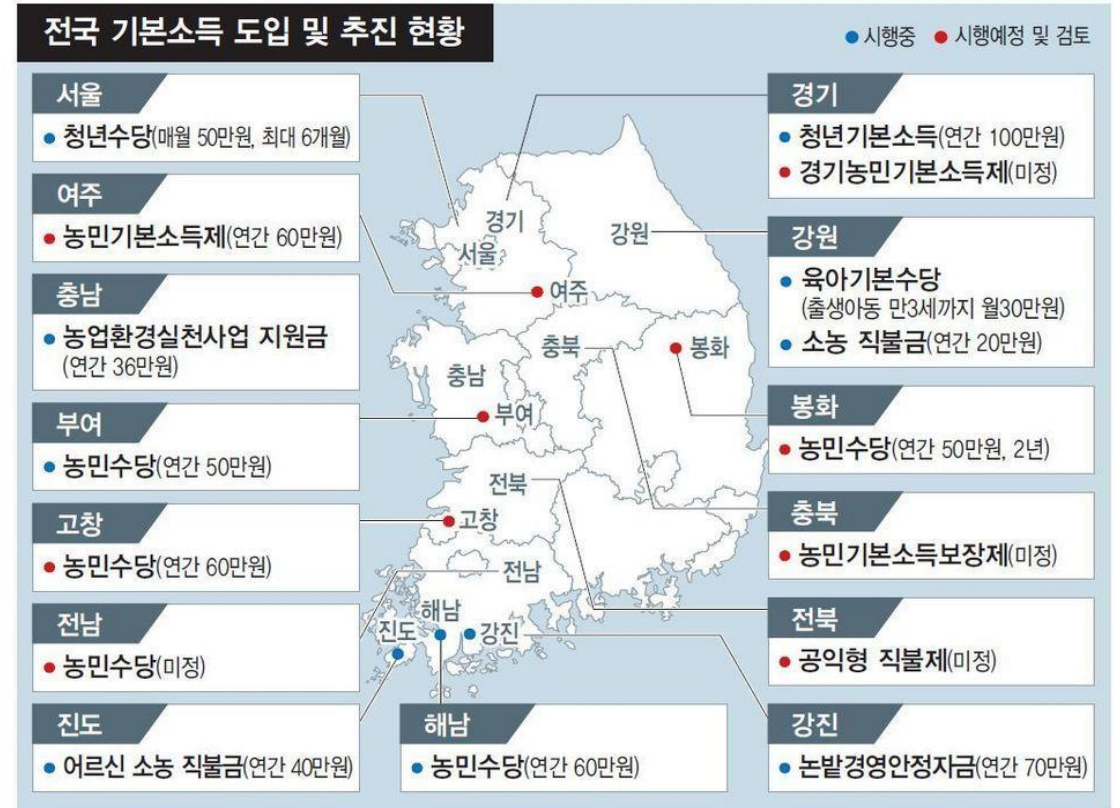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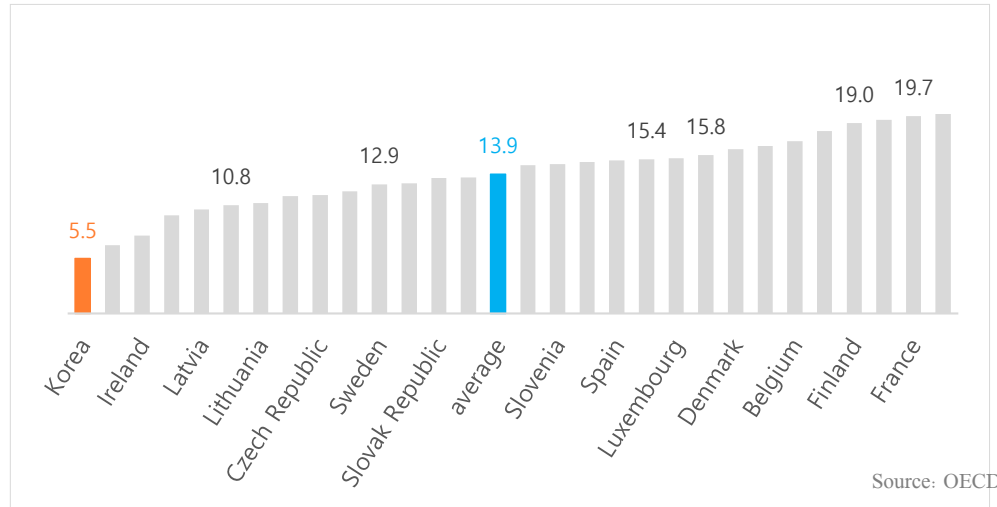
<핵심 주장: 기본소득은 복지(재분배)가 아니다. 임금(1차분배) 이전의 0차 분배!>

==> 결국 오직 유효한 비판은 재정적 가능성에 대한 비판

기본소득과 재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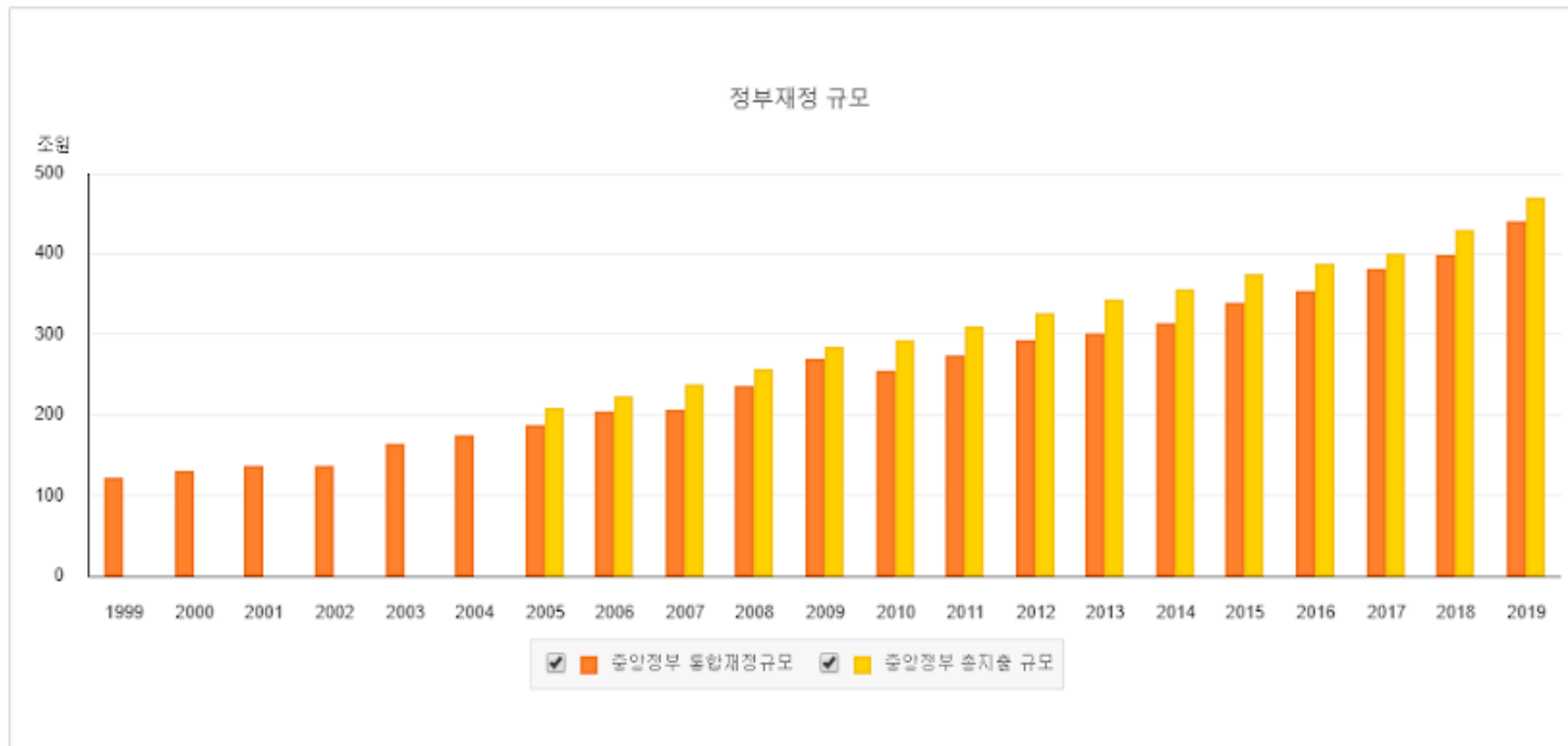
한국은 복지비 지출이 낮고, 현금성 분배는 더 낮음

Social benefits in cash for household(GDP%, 2017)



기본소득과 재정2

그래프



세 가지 기본소득안 – 기본소득은 소득분배혁신이다

❑ 재정중립형 기본소득 – 소득공제제도 정비와 불로소득 과세로 최저선 지급

- 액수: 연간 100만원 이하
- 효과: 불평등 감소
- 재원: 비과세감면 정비(50조원), 세목신설(국토보유세 15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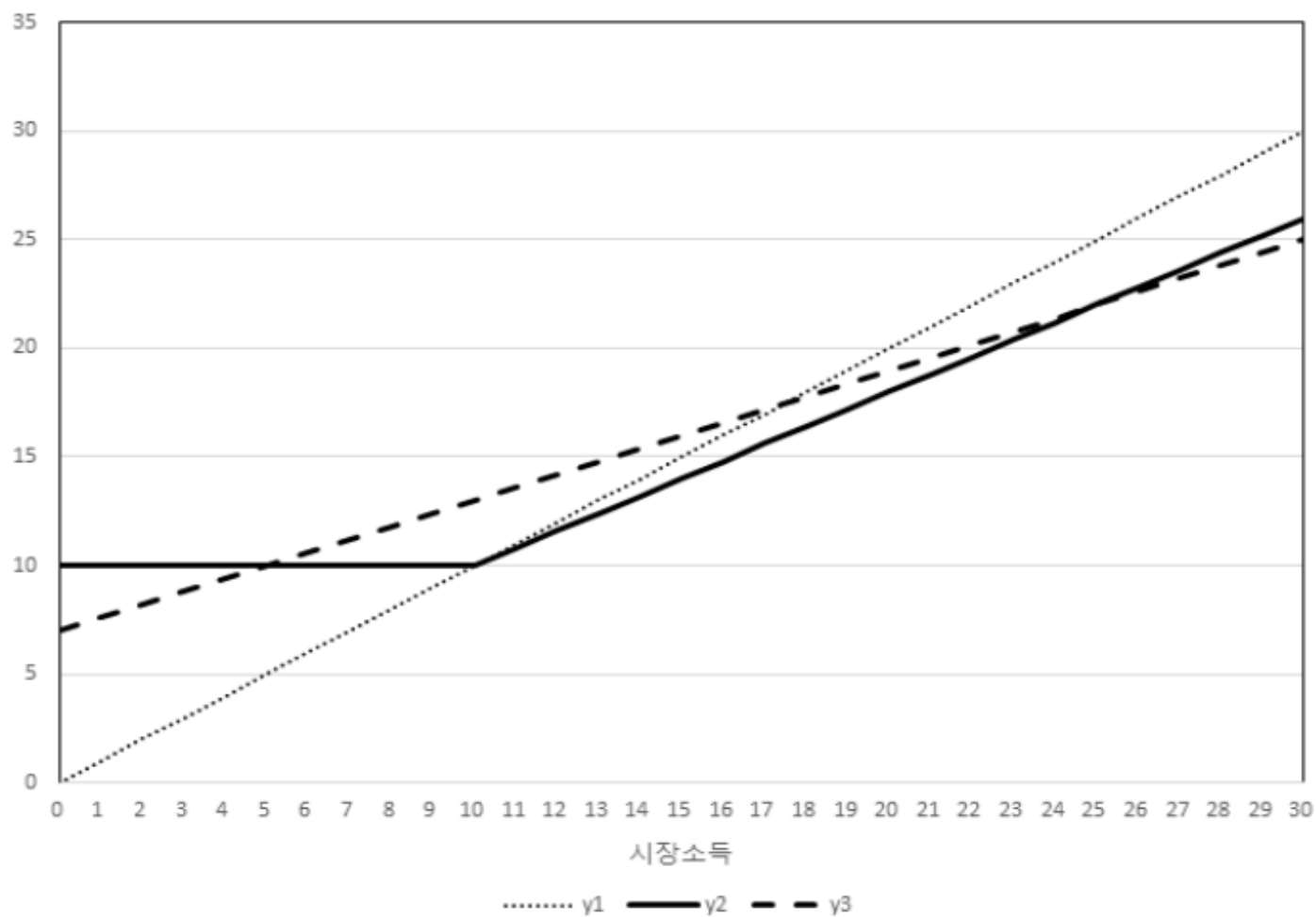
❑ GDP 10% 기본소득 – 국민소득의 10%를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분배

- 액수: 월 30만원(2019년 기준)
- 효과: 불평등 감소, 부분적 탈상품화, 부분적 행정효율화
- 재원: 비과세감면 정비(50조원), 기본소득 과세소득화(25조원),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 부문 현금수당(15조원), 복지 이외 부문 현금수당(일자리안정자금, 구직촉진수당, 농가직불금 등), 지자체 현금수당

❑ 충분한 기본소득 – 기존 복지를 대체하고 생계불안을 제거하는 소득

- 액수: 월 50만원 이상
- 효과: 불평등 감소, 탈상품화, 행정효율화
- 재원: 비과세감면 정비(50조원), 기본소득 과세소득화(25조원),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 부문 현금수당(15조원), 복지 이외 부문 현금수당(일자리안정자금, 구직촉진수당, 농가직불금 등), 전통적 복지제도 대체(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SOC/중소기업지원 등 산업지원예산 정비, 증세(소득세 세율인상, 자산관련 증세, 데이트/기계세 등 세목신설)

그림 1. 기초생계급여와 기본소득/부의 소득세 효과



y_1 : 아무런 소득재분배가 없을 때의 가처분소득
 y_2 : 기초생활보장 하의 가처분소득
 y_3 : 기본소득/부의 소득세 하의 가처분 소득

(유종성.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2018, pp.3~35.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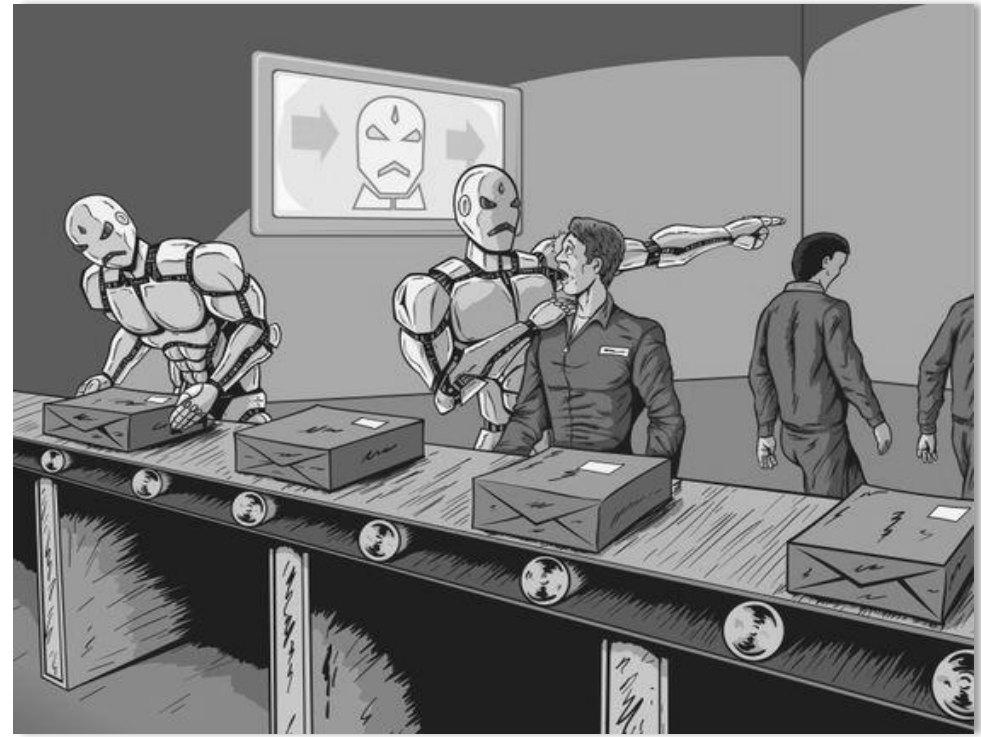
기본소득의 개인적 효과와 관련된 질문들



기본소득의 구조적 효과와 관련된 질문들



어떤 테크노피아가 오더라도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Paid Work

Unpaid
Work

Leisure

Personal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Labor

Work

Action

Personal

기본소득사회

□ 가치와 보람을 찾는 일자리

- 경직되고 불안한 고용상황을 생계부담 감소로 유연화
- 교육, 사회적경제, 비영리, 문화예술 등 공익형 일자리 종사자 확대
- 비시장 영역의 일자리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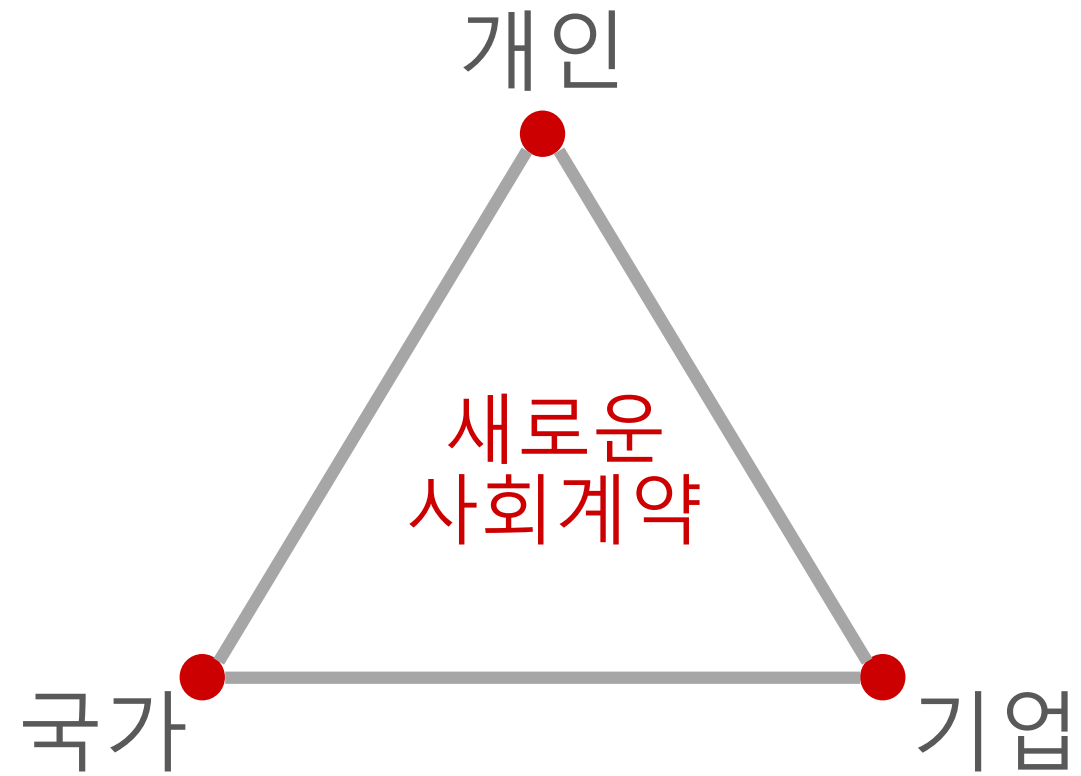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 학령기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함께 익히는 학습으로
- 온라인, 지방대, 마을공동체 인프라를 활용해 학습확대
- 전체 성인 역량향상으로 사회 경쟁력 확대

□ 자유로운 기업활동

- 기존 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규제 정비
- 생계불안 없는 창업가 확대
-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삼각편대



왜 기본소득인가?

이원재
LAB2050

wonjae.lee@lab2050.org